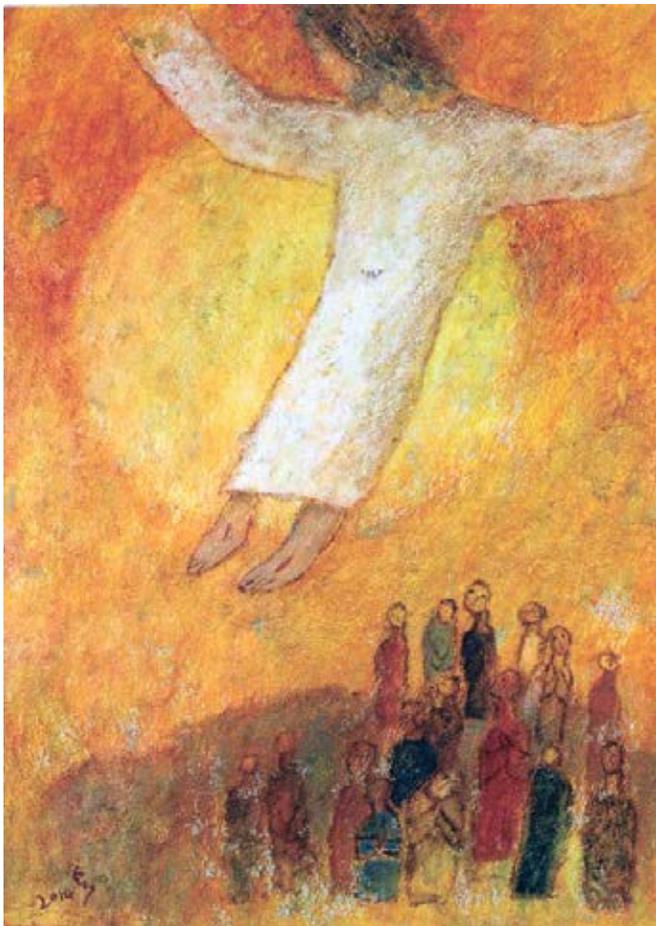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루카 24,50-53)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다〉, 김옥순 수녀작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시편 47(46),2-3,6-7,8-9
(◎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이,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여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 1,17-23 <또는 히브 9,24-28; 10,19-2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루카 24,46-53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40] 주의 승천 찬미하네
 - 봉헌성가: [39] 하나 되게 하소서
 - 성체성가: [154] 주여 어서 오소서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 파견성가: [141] 죽음을 이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⁴⁶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⁴⁷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⁴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⁴⁹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⁵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⁵¹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⁵²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⁵³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묵상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다

주님 승천 대축일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줍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상으로 오르셨듯이,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끝마치면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림 / 김옥순 수녀)

묵상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충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였음을 확인시켜 주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다고 이 승천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에 나오는 승천 장면이나, 성지에서 만나는 주님 발현이나 승천 장소에 남아 있는 발자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뚫고 떠나버리셨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승천의 근본적인 의미는 공생활을 통하여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디 자리,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쪽, 곧 하느님 차원으로 올라가셨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공간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초월성, 하느님의 영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와 마태오 복음서에서와 달리 오늘 읽은 루카 복음서에서 주님의 승천을 겪은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지냅니다.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시련과 아픔의 도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십자가의 처절함과 그에 대한 두려움에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그 모든 것이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승천을 통해서, 당신께서 보여 주신 그 모든 일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며,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 구원이 결정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 속에 개선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에페 4,25)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인간 공동체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토대와 중요성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물망’과 ‘공동체’의 비유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이제 일상생활 영역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통신망(Net)은 우리 시대의 자원입니다. 통신망은 한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식과 관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은 콘텐츠의 생산과 유포와 활용 과정에서 기술이 가져다 준 중대한 변화와 관련하여 여러 위험 요인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한편으로 우리가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더 잘 알며 서로 도움을 주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과 그 권리들을 마땅히 존중하지 않고, 정치나 경제의 차원에서 이득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작하여 사용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젊은이 네 명 중 한 명은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그물망의 비유는 의미가 풍부한 또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 줍니다. 바로 공동체(community)입니다. 화합하고 연대하며 신뢰하고 같은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일수록 더욱더 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연대의 그물망을 이룬 공동체는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경청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상황에서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공동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상 커뮤니티들은, 그저 개개인이 공동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따라 모인 집단으로서 약한 유대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소셜 웹(social web)상에서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 곧 그룹과 무관한 사람과 비교하여 대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도 서로를 향한 책임을 깨달아 공동체의 참다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바로 성인은 몸과 지체에 관한 비유를 들어, 하나 되게 하는 유기체를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에페 4,25). 서로 지체라는 것, 바로 이 심오한 동기를 들어 바로 사도는 거짓을 벗어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진실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친교의 상호 관계를 거짓 없이 드러내어야 할 필요성에서 생겨납니다.

몸과 지체의 비유는, 우리 정체성이 친교와 ‘서로 다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 원수들마저도 인격적 존재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인간 개인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이러한 능력은 하느님 위격들 사이에 이루는 사랑의 친교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독이 아니라 친교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또한 그러시기에 소통이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더욱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알려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 주시고자 우리 언어를 취하시어 역사 안에서 인류와 참되고 고유한 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 [Dei Verbum], 2항 참조) ...

‘좋아요’에서 ‘아멘’으로

몸과 지체들의 이미지는 소셜 웹의 이용이 몸과 마음, 눈과 눈길과 숨결을 통해 살아 있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만남을 보완할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한 가족이 통신망을 활용하여 더욱 친밀해지고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통신망은 친교의 자원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성찬례를 함께 거행할 때, 네트워크는 친교의 자원이 됩니다.
통신망을 통해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이들의 미덕이나
아픔에 관한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재발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을 추구할 때, 통신망은 친교의 자원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진단에서 치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곧 대화와 만남과 미소와 다정한 표현을 향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움아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친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성찬 친교로 엮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성찬 친교에서는 ‘좋아요’가 아니라 진리, ‘아멘’을 바탕으로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일치하고 다른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성모의 밤

“가장 고운 꽃 모아 성전 꾸미오며 사랑하올 어머니 찬미하오리다”



2019년도 성모의 밤 행사(전례부 주최·레지오 마리아 협조)가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있었다.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의 장미화관 봉헌을 시작으로 단체부 소속 12개 신심단체들은 정성껏 준비한 꽃 바구니로 성모님 주위 제대를 아름답게 꾸몄고, 이어 개인별 장미 꽃 봉헌과 편지 봉헌이 이뤄졌다. 또한 성가대와 레지오 마리아의 주송으로 전 신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환희의 신비 묵주기도 5단을 봉헌하였다. 이어 강금생 안나(레지오 마리아 대표)자매와 권빛나 글라라 자매(학생부 대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시를 낭독했으며, 신자들은 다함께 ‘성모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를 드렸다.

제2부 미사에서 강두영 암브로시오 보좌신부는 “성모의 밤 예식을 통해 성모님께 바친 장미꽃 향기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신자가 되자”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모후 꼬미시움 단장 정선화 루시아 / 사진: 전용진 라우렌시오〉

Congratulations Fr. Paul's 23rd anniversary of Ordination



Our Sunday School students and their families celebrated a special ceremony, which was the 23rd anniversary of Fr. Paul's Ordination to Priesthood.

Fr. Paul Berghout was ordained May 18th, 1996. Fr. Paul was born in San Francisco, he grew up in the Seattle area and went to College in Washington State. He went to Medjugorije in 1990, and it changed his life. Afterwards he went to Mount Saint Mary's Seminary in Maryland.

Our CCD and CYO students have pledged one year's worth of prayers as their Spiritual Gift to celebrate Fr. Paul's anniversary. During the ceremony, our youth orchestra played a beautiful song following the presenting of flowers and the spiritual gift.

We thank Fr. Paul for guiding our youth to grow spiritually. We continuously pray for him to experience joy in his ministry.

Youth Ministry

THE ASCENSION OF THE LORD June 2, 2019

Jesus Ascends into Heaven!



<바오로딸 콘텐츠>

Today we celebrate the feast of the Ascension-when Jesus went up, body and soul, into Heaven. Forty days after Jesus rose from the dead, He took his disciples up to a big hill and told them that He was going to send the Holy Spirit to them soon. Then He went up Into the sky and disappeared behind the clouds.

At first it seems kind of sad that Jesus left His friends, doesn't it? But how could they be sad when Jesus was returning with joy to His Father

in Heaven?

Sometimes we are sad when somebody we love dies or moves away, and that's okay. We can't stay with our friends forever in this world, but we will in Heaven. Jesus is there waiting for us to come and live forever with Him and all our friends.

So today we should celebrate Jesus' going into Heaven, and remember that He has gone ahead of us to make a place ready for us when we die. <<https://www.thekidsbulletin.com>>

True or False?

1. Jesus kept appearing to His disciples for forty days after Easter. **True or false?**
2. Jesus did not send the Holy Spirit to the disciples until after He went up into Heaven. **True or false?**
3. Jesus had taught the Apostles everything they needed to know before He died, so He didn't to teach them anything after the Resurrection **True or false?**
4. Some of the disciples asked Jesus if he was going to start a new kingdom in this world. **True or false?**
5. Jesus and the apostles were all gathered in one room when Jesus disappeared and went into Heaven. **True or false?**
6. Jesus was with a big crowd of His friends on a hill when He went up, body and soul, into Heaven. **True or false?**
7. When Jesus comes back, He will return in the same sort of way as how He left. **True or false?**

Raphael News

Raphael held a BBQ party



With Raphael college students coming back for the summer, on Sunday, May 26th 2019, Raphael held a BBQ kick back to welcome all the students back. Every member was able to

catch up and share stories of their college experiences with delicious food cooked by the Raphael Board Members and Father Kang. It was a successful start for Raphael, as more exciting events are to come this summer.

- Hyunsoo Lim



교황, 국제 카리타스에 사랑 실천의 참 의미 강조

“가난한 이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숨어계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300여 명의 국제 카리타스 회원들이 “인류는 한 가족, 우리 공동의 집(One human family, one common home)”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1차 총회 참석을 위해 로마에 모였다. 총회는 카리타스 회원기구들의 사업 과정과 정책을 점검하고자 4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다음 4년의 시간을 위한 전략적 틀을 잡는 자리가 된다.

● 사랑의 실천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27일 월요일, 국제 카리타스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베푸는 것”이 사랑의 실천(자선)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히려 “자선의 근본과 핵심은 하느님 그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자선을 봉사로만 여긴다면, 교회는 인도주의적 단체가 될 뿐이며, 교회의 모든 자선 활동이 ‘물류지원 부서’의 일에 그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난한 이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숨어계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황은 “최악의 차별은 가난한 이들이 영적 관심의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그들은 하느님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벗임을,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것이 자선을 지속하고 동행하며 활력을 주는 교회와의 친교이자 그리스도와의 친교”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 실천의 봉사(diakonia)가 교회의 중심이자 교회의 본질을 정의하는 친교의 가시적인 도구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 사랑 실천은 관계입니다

교황은 사랑을 실천할 때 온 마음과 정신과 전 인격을 내어주어야 한다며, “가난한 이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애주의적, 효율적, 혹은 강박적인 자선 단체들과의 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선 혹은 기만하는 자선”에 대해 경고했다. 교황은 자선이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가치”라고 말했다.

● 자선은 사업이 아닙니다

교황은 “자선은 불안한 우리 양심을 위한 진정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선은 사업이 아니다. 교황은 “자선에 대해 수없이 떠들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자선 사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돈을 낭비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자선은 단순한 생각이나 경건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이들 안에서 접하는 그리스도와의 체험적 만남”이라고 말했다. <<http://www.vaticannews.va>>

▶ ANNOUNCEMENT

1 2019-2020 Sunday School Registration

- When: Sundays, May 19 - June 16
- Where: Hasang building lobby

2 First Holy Communion Class

- 6/5 & 6/12(Wed.), 7pm-9:10pm
Family Interview with Fr. Kang
- 6/14 (Fri.)
Sacrament of Baptism during 7:30pm Mass
- 6/15 (Sat.)
1st Penance (10am), Rehearsal (11:30am)
- 6/16 (Sun.)
1st Holy Communion during 11:40am Mass

3 Annual CCD Outdoor Mass & Picnic

- When: Sun., June 2, 8:45 am-2 pm
- Where: Frying Pan Farm Park
Visitor Center Picnic Pavilion
(2739 West Ox Road, Herndon, VA)
- Drop Off: 8:45am at Each Homeroom
- Pick Up: 2pm at Each Homeroom

There will be English Mass for students at 11:40 am in our parish as usual.

4 June 9 : Last Day of Sunday School

- 6/12 : Last Confirmation Class of the 1st Semester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려면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려면

우리 모두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떠나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남을
거랍니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카 24,51)

1 불우이웃 돕기 야드 세일

- 일시: 6월 1일(토), 6월 2일(일)
- 장소: 성당 친교실 / 주차장

2 구역임원 교육

- 일시: 6월 2일(일) 오전 11:30(B-1,2)

3 청소년 사도회

- 일시: 6월 2일(일) 오후 1시(A-3,4)

4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6월 2일(일) 오후 1시(B-1)

5 하상 성인학교 봄학기 종강식

- 종강식: 6월 7일(금) 오전 11시(친교실)
- 문의: 김 율리아나 교장 (703)217-2775 (종강식 후에도 수업이 계속 됩니다.)

6 병자 영성체

- 일시: 6월 7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264-0050

7 성체강복

- 일시: 6월 7일(금) 오후 7:30 미사 후

8 회장단 회의

- 일시: 6월 7일(금) 오후 8:30(회의실)

9 공동체 기도회

- 일시: 6월 8일(토) 오후 8시
- 소수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0 12학년 졸업생 축하파티(Senior Banquet)

- 일시: 6월 8일(토) 오후 7시-10시(친교실)
- 문의: 이희준 교감 (703)627-0799

11 단체장 회의

- 일시: 6월 9일(일) 오전 11:30(B-3,4)

1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6월 9일(일) 오후 1시(B-3,4)

13 독서단 정기총회

- 일시: 6월 9일(일) 오후 1시(성당)
- 대상: 평일미사, 토요 특전미사, 주일 8시, 10시 미사 독서자 및 해설자
- 문의: 강지우 소피아 (571)201-6819

14 주일학교 종강

- 일시: 6월 9일(일)

15 성인 견진 예식

- 일시: 6월 9일(일) 오후 2:30
- 장소: Cathedral of St. Thomas More(알링턴 주교좌 성당) 오후 1:30까지 주교좌 성당 지하실로 대부분님과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 (571)275-0691

16 2019 - 2020년 주일학교 등록

- 등록비: \$80 / 6월 16일 마감
- 장소: 하상관 교무실 (일요일 오전 10시 - 오전 11:30)

17 효도 한마당 행사

- 일시: 6월 16일(일) 오전 11:40(친교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 분들(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에서 시니어 아파트로 가는 버스 시간은 오후 2:30 입니다.)

18 알링턴 교구 주교 집전 다민족 미사 및 성가대원 모집

- 다민족 미사: 6월 21일(금) 오후 7시
- 장소: St. James Catholic Church 905 Park Ave. Falls Church, VA 22046
- 다민족 미사를 위해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뜻깊은 행사에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 다민족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 문의 및 성가대원 신청: 김문자 마리아 (703)615-9910

19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뉴저지 일일 성지 순례

- 자연속에서 티없으신 성모 성심과 함께하는 은총의 자리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7월 13일(토) 오전 5시 출발 / 오후 10시 도착
- 장소: 뉴저지 파티마 성지 The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 참가비: 80불(아침, 점심과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비 포함)
- 신청: 6월 9일부터 신청, 친교실(선착순 52명) (참가비는 현금으로 신청서와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 루카 (703)254-7963

•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

복음화 지향: 사제들의 삶의 방식

사제들이 검소하고 겸손한 삶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는 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기도합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6월 2일(일)	주님 승천 대축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A-3),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복자님 야드세일(성당, 주차장), ME 회합(오전 11:30, B-4)
3일(월)	성 기롤로 르양가과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4일(화)	부활 제7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5일(수)	성 보나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첫 영성체반/학생 견진반(오후 7:45, 하상관),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6일(목)	부활 제7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7일(금)	부활 제7주간	병자 영성체,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하상 성인학교 종강식(오전 11시, 친교실), 평일미사/성체강복(오후 7:30), 회장단 회의(오후 8:30, 회의실)
8일(토)	부활 제7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공동체 기도회, 알링턴 교구 사제서품식(오전 11시, 주교좌 성당), 비엔나 구역모임(오후 4시, 나눔터), Senior Banquet(친교실), CLC 주관 야드세일(성당, 주차장)
6월 9일(일)	성령 강림 대축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독서단 정기총회(오후 1시, 본당), 베드로회 모임(오후 1시, A-1,2), 주일학교 종강, 교사회(오후 1시), 성인 견진식(오후 2시, 주교좌성당)

2차 헌금

이번 주일(6월 1일, 2일)은 Catholic Communications Campaig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부활 제7주간: 시편 37-45, 1 코린 11-12**

KACM TV 하이라이트

6월 6일(목) 오후 5:00-6:00	Cox Ch.30, 830 Fics Ch. 30
6월 7일(금) 저녁 8:00-9:00	
6월 9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뉴스
- **위대한 성인들 (4):** 윤원진 비안네 신부 카파도키아의 3대 교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5월 26일(부활 제6주일)

주일헌금	\$7,299.10
교무금	\$9,350.00
교무금(크레딧카드)	\$9,695.00
특별헌금	\$500.00
2차헌금	\$0.00
합계	\$26,844.1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분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버라), 정명규(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버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재(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검(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정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기보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 **군복무자**
-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치오),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멘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셀(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요한)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703-679-8959	Commercial 김준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